



**인플레이션 하락**

- 구매력 잠식에 대한 우려로 소비축진
- 저이자율 체제 촉진
- 실물(예: 금) 대비 금융저축 매력 상승

출처: Bloomberg

**여러 석유가격 가정에 따른 인도의  
경상수지 적자(GDP 대비 %)**

	US\$50/bbl	US\$25/bbl
FY14	1.7	1.7
FY15	1.4	1.4
FY16(예상)	1.2	1.2
FY17(예상)	1.5	0.3
FY18(예상)	1.8	0.7
FY19(예상)	0.6	-0.4
FY20(예상)	0	-1

출처: BofA Merrill Lynch Global Research

**1. 인도, 남아시아 경제 성장을 이끌다: 세계은행**

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2016년 7.5%에서 2017년 7.7%로 상승하여 남아시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 지역이 되는데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.

**2. 뮤추얼 펀드 포트폴리오, 2016년 14% 증가 예상**

인도의 뮤추얼 펀드 협회(AMFI)에 따르면, 인도의 뮤추얼 펀드가 2015-16년 590만 포트폴리오 이상을 추가하여 전년 대비 14%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.

**3. FDI 유입에 따른 등급 상향 가능성, '메이크 인 인디아' 결실을 맺다: 무디스**

무디스의 투자자 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,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한도의 자유화를 위한 노력과 '메이크 인 인디아' 캠페인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(FDI)가 증가하여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도움을 주고 검토 시점에 등급 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.

**4. IMF, 인도의 성장 예측 유지,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낮춤**

국제통화기금(IMF)은 2016-17년 인도의 성장률 전망을 7.5%로 유지했으며, 성장은 낮은 에너지 가격과 높은 실질 소득으로 인한 민간부문 소비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

**5. 인도, 2015-16년 태양열 에너지 발전 목표 1.5배 이상 초과 달성**

인도는 또 다른 주요 개발사업인 태양열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서, 2015-16년 목표인 2,000MW 대비 3,018MW를 발전공급하여 2015-16년 태양열 에너지 발전 목표를 1.5배 초과 달성했습니다. 2016-17년 말 누적목표는 17,000MW로 설정되어 있으며 2016-17년 최소 10,000MW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**6. Ericsson, Nokia, Huawei 및 Cisco, 인도의 '스마트 시티'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**

Ericsson, Nokia, Huawei 및 Cisco와 같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향후 5년 간 500억 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의 '스마트 시티'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.

**7. 외국기업들의 지점(BO)/연락사무소(LO)/프로젝트 사무소(PO) 설립 절차 단순화**

인도 정부는 외국기업들의 지점(BO)/연락사무소(LO)/프로젝트 사무소(PO) 설립에 대한 승인권한을 공인 딜러 카테고리-1 은행들에게 위임했습니다. 이로써 인도에서의 사업 수행이 손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**8. 2월 대표 CPI는 5.18%로 컨센서스 및 1월의 5.69%보다 대폭 하락했습니다.**

이 지수는 1월 상승(0.2%)에 비해 가격 모멘텀에서 전월대비(MoM) 하락(-0.3%)했습니다. 가격 모멘텀의 하락은 전체 식음료 지수(전체 CPI의 46%)의 가파른 하락때문이었습니다(전월대비 1.1%하락)

이 보고서는 주식/단위 제안을 구성하지 않으며 의견이나 광고에 대해 추천이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는 임의의 증권이나 가격에 대한 향후 가능성 있는 움직임에 대한 예측이나 대변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상기 주장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 보고서를 받는 특정한 사람의 특정 목적, 재무적 상황 및 특정 필요와 상관이 없습니다. 이 문서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이 문서에 언급된 임의의 증권, 금융상품 또는 투자 전략의 적합성에 대해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.